

## 구세주 말씀 실천 안하는 자는 불신자와 같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본제단을 덮쳤을 때 더러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이 깨진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가진 신도들이 많았다. 2003년 사스(SARS)의 공격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승리제단을 안전하게 보호해주신 구세주이므로 어떠한 고통이 오더라도 적어도 승리제단 신도들만은 보호해주실 것으로 믿어온 신도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 믿음은 믿는 마음이 아니다

그렇게 믿는 것은 구세주를 잘 믿는 것으로 보이나 사실은 구세주의 말씀에 어긋나는 불신자들과 같은 마음 상태이다. 승리제단에서 말하는 구세주를 믿는다는 것은 구세주를 구세주로서 믿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이기고 승리한 구세주의 영을 믿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믿는 마음이 아니라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랑을 이긴 구세주의 영을 말한다.

우리는 입술로는 이러한 믿음의 정의를 말했지만 행동은 믿는 마음에 머무르는 어리석고 잘못된 신앙을 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만일 믿는 마음에 머무르는 신앙을 했다면 구세주를 믿는다는 것은 구세주처럼 마귀를 이기는 마



구세주 엄마에게 부름을 지우는 유아적 신앙에서 빨리 벗어나라

음을 소유하는 경지에 올라가는 것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배워 다시 한번 신앙이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믿는 마음의 단계에 머무르는 신앙이라면, 얕은 단계의 신앙인들이라고밖에 할 수 없고, 더욱 혹평하자면 기독교인들과 같은 신앙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므로 코로나 바이러스 영을 물리칠 수 없어서 코로나에 걸리게 되어 있다. - 구세주께서는 고질이 돌 때 기독교인들이 제일 먼저 걸린다고 예언하셨다 - 강한 영의 소유자가 되어서 어떠한 마귀의 영도 물리칠 수 있는 경지에 오르게 되

면 코로나가 아니라 어떤 괴질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다.

### 어린이 신앙에서 빨리 벗어나라

아직도 옛날, 즉 구세주가 육신의 모습으로 계실 때와 보광 후 분신으로 역사하는 때를 구분하지 못하는 신앙을 한다면 빨리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야 한다. 구세주는 영의 엄마로서 영적 자식들을 육성하고 양육하는 분이시다. 따라서 초창기에 는 갓난아이에 불과한 신도들을 보호해 주고 일일이 가르쳐 주셨다. 하지만 주님께 서는 24년 동안 자식들을 직접 양육하시다가 보광하셨고, 지금은 보광 후 17년을 몇

달 안 남기고 있는 시점이다. 다시 말하자면 승리제단 역사가 40년을 바라보고 있다. 40년이란 인간의 수명으로 보더라도 장년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아직까지도 어린이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자신의 마음을 빨리 점검하여 어리석은 마음을 벗어던져야 할 것이다.

한편 구세주의 보광은 호의 약조건이라고 김상욱 전 신도회장은 박태선 장로님의 말씀에 빚어 말했다. 만일 구세주가 계속 살아계시는 호의 호조건에서는 우리들을 구세주께서 반드시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구세주는 당신의 자식들을 보호해 오셨고, 그러한 간증과 체험을 다들 갖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호의 약조건이므로 구세주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영생의 대열에서 낙오하게 되어 있다. 영생은 이 세상에서 가장 성취하기 어려운 것이다. 구세주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구세주가 있는 경지, 초초로 구세주를 바라보는 경지, 박멸소탕 기도가 일 초도 끊어지지 않는 경지, 생명수가 일 초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연결되는 경지에 이르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누구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기독교적 유아적 신앙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 朝生暮死十戶餘一 조생모사십호여일

3년 간 흉년이 들고 2년 간 괴질이 돌아 엄병과 괴이한 전염병이 급속도로 만국을 휩쓸 때 도하고 실시하는 병과 천식과 같은 질병과 흑사병과 피가 마르는 이름 모를 전질(天疾)로 인하여 아침에 생생하던 사람이 저녁에 죽으니 열 집 가운데 한 집만 겨우 살아남으리라.

山嵐瘴癘萬人多死 大方局手印서 산람해장만인다사 대방국수인서 五運六氣虛事되니 無名惡疾免할소나 오운륙기허사되니 무명악질면할소나 當服庵麻常誦呪로 萬怪皆消海印일세 당복엄마상승주로 만괴개소해인일세

산과 바다에 숨어있던 마귀의 독한 기운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다 죽게 되었으나 그 어떤 명(名醫)의 이름난 처방도 소용이 없어서 오운육기(五運六氣)도 허사가 되니 이름 모를 악독한 질병을 어찌 면할 것이냐? 항상 멸마경(滅魔經)을 외우며 엄마(정도령)가 내려주는 해인을 받아먹어야만 모든 괴질을 다 소멸시킬 수 있느니라.\* 박태선 기자

### 사과문

본제단 기속사에서 2021. 2. 8. 발생한 집단감염으로 말미암아 국민 여러분들과 방역당국에 엄청난 심려를 끼쳐드렸고, 본의 아니게 본제단 신도 및 관련된 많은 분들에게 여러 피해를 드린 점,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제단은 재발방지를 위하여 부천시의 행정지도에 따라 기속사를 3월에 폐쇄하였으며,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 코로나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1. 4.

영생교 하나님의 성회 승리제단 신도회장 윤봉수 올림

## 금주의 말씀 요절

###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03> “하나님 안에는 음양이 없다”

하나님 안에는 음양이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칙과 마귀의 법칙은 일원적인 법칙과 이원적인 법칙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초창기에 말씀하였다. 누구든지 상대를 의식하는 것은 나와 내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서로 의식하는 순간 마귀의 피로 화해진다. 그래서 + - 전기가 합해지면 불이 켜지면서 전기 자체는 소

모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 - 가 공존할 때 소모가 오고 멸망이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음과 양이 합해지면 멸망이 오고 질병이 오고 죽음이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음과 양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부딪침도 없을 뿐만 아니라 멸망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 행복한 노년 준비

## 내 몸 얼마나 아십니까 - 귀

한의학에서는 귀를 신장의 건강 유무와 관련이 깊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은 귀가 높고 울려 불은 경우 신장도 제 위치보다 높고 불이 있고 귀 뒤가 움푹 들어갔으면 신장이 아래로 처져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신장이 울려 불어 있으면 등골이 아파서 잘 췌다 구부러지지 못하고 신장이 내려 불어 있으면 허리와 엉치가 아플 수 있습니다.

귀는 오감 중 하나인 청각을 받아들여 소리를 듣는 기관으로 외이, 중이, 내이로 구성됩니다. 외이는 소리를 고막까지 전달하는 부분이고, 중이는 고막에서 내이 사이의 공간으로 고막의 진동을 달팽이관까지 전달해주는 부분을 말합니다. 내이는 소리를 직접 느끼는 달팽이관이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외이는 귓바퀴와 외이도가 포함됩니다. 귓바퀴는 연골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리를 모으는 기능을 하고, 외이도는 귓바퀴에서 고막까지 이르는 길로 이물질이 침입하는 것을 막아주며 S자 모양으로 공명기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중이는 고막, 이소골, 고실, 이내근, 이외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외이도를 통해 들어온 진동을 고막과 이소골을 통해 내이에 전달합니다.

고막은 중이를 보호하는 방어벽이며 음의 진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소골은 3개의 작은 뼈인 추골, 침골, 등골이 포함되며, 이들은 고막에 도착한 진동을 내이의 난원창으로 전달합니다.

고실은 외이와 내이 사이에 위치하는 공간으로 가득찬 공기강으로 중이강이라고 부르고, 이내근은 고실반사를 통해 내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이관은 유스타키오관이라고 하며, 중이의 환기와 분비물을 배출해줍니다.

내이는 전정기관, 세반고리관, 달팽이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이는 액체로 가득 차 있으며 형태와 구조가 복잡하여 미로로 불립니다. 내이는 소리를 감지하고 몸의 평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달팽이관은 중이에서 전달된 음파를 신경 흥분으로 전환하여 소리를 인식하는 역할을 하고, 전정기관은 평형각각을 감지하고 수용하는 역할을 하며, 반고리관은 평형각각을 감지하고 수용하는 역할을 합니다.

귀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고 우리 몸의 평형각각을 유지하도록 해줍니다. 우리 몸의 소리가 공기를 통해 외이에도 달하면 내이의 고막을 진동시키게 되고 고막은 이소골을 진동시키게 됩니다. 이런 뼈의 진동은 달팽이관의 청세포를 자극하며, 청세포는 전기신호를 발생시키며 청신경이 뇌에 전기신호를 보내어 이 신호를 소리로 느끼게 됩니다. 내이의 전정기관과 반고리관에서는 우리 몸의 평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차를 오래 타거나 배를 탈 때, 멀미를 느끼게 됩니다. 이는 시각정보와 평형정보의 차이 때문에 발생합니다. 눈은 몸이 차나 배와 같은 운송수단 안에 가만히 있다고 신호를 보내지만 귀의 평형기관은 움직임을 있다고 뇌에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멀미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멀미가 날 때는 창밖의 풍경을 보며 시각정보와 평형정보를 일치시키는 것이 멀미를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 귀 마사지의 효과

또, 귀에는 혀 발바닥과 마찬가지로 오장육부의 신경반사구가 있으니, 가끔 귀를 마사지 해 주는 것은 손쉽게 오장육부를 마사지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다줍니다. 특히, 귀를 건강하게 하려면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스트레스를 안 받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 것은 뇌에서 인식하게 되므로 뇌 쪽에 가까이 붙어있는 귀 건강에도 밀접하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하겠습니까.\*

김주호 기자

### 구독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본사(승리신문사)가 속해 있는 본부제단 건물이 2.9부터 3.8까지 집합금지 및 폐쇄명령을 당하여 부득불 3월 1일자, 3월 15, 4월 1일자 신문을 발행하지 못하였고, 2월 15일자(825호)는 발행되었지만 전국으로 발송하지 못하였습니다. 4월 15일자(826호)부터는 정상적으로 발행되며, 아울러 발행된 825호는 본제단 홈페이지에서 읽을 수 있사오니 구독자님께서도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리신문사